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 바랍니다. 하이텔(DGU9번방, ID:dgpress메일)과 여론협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 · (0561)770-2057 · 8

헤화관 뒷편 쓰레기 악취 심해

하루가 다르게 날은 점점 길어지고 하늘은 푸르게 변함에 따라서 학생들은 여기저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날씨가 점점 좋아 질수록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있다. 다들 아는 헤화관 뒷편이다. 정각원을 지나 동국관으로 가다보면 심한 악취가 난다. 바로 쓰레기 차의 주차장이 그곳이기 때문이다.

쓰레기 차가 놓여진 그 쪽은 많은 학생들이 수업 등의 이유로 자주 지나가고 그 옆 그들은 학생들 이 휴식을 취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요즘은 쓰레기 악취로 인해 그늘진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다.

또한 지나갈때 숨을 쉬지 않고 빠르게 뛰어 가는 학생들도 보인다. 나 역시 그 앞을 지날때는 코를 막고 지나간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에 쓰레기 차가 있다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일이다. 또한 여름이 다가올수록 그 앞의 악취는 더욱 심해질 것

로 생각된다. 본교는 그리 넓지도 않아서 조용히 쉴 공간도 많지 않은데 현실이다.

팔정도 주변과 학림관앞, 동국관앞의 벤치 등이며 쓰레기차가 놓여진 맞은편의 그들은 동국관을 이용하는 아에게 시원한 그늘이 준비되어 있는 좋은 휴식터였다.

이곳에 쓰레기차를 세워 둔다면 학생들을 생각해서 그 관리를 잘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깨끗이 해야 할 것이며 쉴 수 있으면 사람들의 왕래가 뜰한 지역에 세워 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무엇든 여름을 그늘진 그곳에서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 상 은 (사과대 신방파)

음악의 표현 남을 위한 자세 필요

요즘 어지간한 공공건물과 회사들은 건물내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교는 수업이 끝난 직후나 시간만 되면 복도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로 인해 연기로 가득차 버린다.

학술문화관의 경우 흡연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지키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복도 곳곳에서 흡연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강의실 바닥에 담배꽂이가 있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없는 경우에 강의실에서도 흡연을 하는 이도 있는 듯 하다.

그 뿐이 아니다. 건물밖의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건물안 보다는 자유롭다고 하지만 거리를 지나다니며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은 그리 보기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교수가 지나가든 나 이든 어른이 지나가든 아랑곳 없이 입에 담배를 물고 다니는 학생들.

물론 담배를 끊으라는 소리는 아니다. 단지 장소를 가려서 피우기를 바랄 뿐이다.

건물내의 흡연은 수업에 방해될 수도 있으며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흡연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도·강의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에서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제재가 있는 아니다.

다만 흡연자 스스로가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 경 욱 (경성대 경제통상학부)

자기물건 소중한 동당연필 되새겨야

식사시 돈 1백원을 아끼면 북한 주민 3개월 먹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1백원이 아닌 엄청난 양의

개인 물품들을 잃어버려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돈을 아끼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것 같다.

얼마전 뉴스에서도 지하철의 분실물 보관소에는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 때문에 보관소가 부족하다는 말까지 나온 적이 있다. 본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책상위에 놓여 있는 볼펜 또는 교수의 유인물들, 잃어버린 그들은 또다시 불편을 사고 친구의 유인물을 복사할 것이다. 그다지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포기하고 다시 사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그러한 물건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이가 없기 때문에 찾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것 말고도 지갑 등을 잃어버려도 그저 다시 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찾아가는 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 도서관을 출입하다보면 수업실에 주인을 기다리는 학생들·지갑을 찾아가라는 듯이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진열되어 있다. 하지만 그 물건에 주인이 붙여진 것이 아니라면 분실하는 이가 많은 것이지 수업실의 분실물은 풀이되지 않는다.

옛날 우리의 아버지·어머니들은 공동연필이 아끼워 볼펜대를 끼워쓰는 세태였다. 그리고 우리의 누나·형들은 자신의 물건에 일일이 자기 이름을 붙여 자신의 물건에 애정을 가지고 소중히 다뤘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세월을 잊어버린채 그저 잃어버리면 새로운 것 하나를 다시 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부터 반성해 본다.

손 성 희 (경성대 회계학부)

독자만평



최정만 (상경대 국제통상학과)

생활관, 오픈하우스 재조명 되어야

지난 호 동대신문에 실린 급장 생활관 오픈 하우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비관생 학우의 투고에 대해 준비 기간 때부터 행사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기에 글을 적어 본다.

27일, 과연 관생들은 이번 행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저지 위원을 제외한 8백 30명 중 4백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저조한 참여율'이란 결과는 달리 78%에 해당하는 관생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떤 근거에서 자치위원과 몇몇 관생만의 행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의 의문스럽다.

다음으로 관생 참여 유동률은 취지에서 실시한 남·여 경매대, 국가 자격증을 보유하는 여성 2명을 중심으로 한 남·녀 사제과 학우들의 스포츠 에어로빅 등에서 여성만을 특정 지칭하여 상용화하였다고 한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또 '행사간 연결성이 없었다고 지적한 것은 남·녀들 모든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기본 취지를 왜곡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독 금·생만이 결산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역시 학기말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 금·생 결산 방식을 무시한 억측으로 볼 수 있다. 이 학우는 비관생으로 관생을 위한 행사에 왜 이렇게 부정적 시각을 가지는지, 오픈 하우스 문제점과는 관계없이 남동 자치회장의 공약 사항이 비관생인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떻게 신입생으로서 경험에 있는 것처럼 예언과 다르다는 비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독 남동의 공약 사항만을 지적한 것은 현 남동 자치 위원회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행사에 대한 문제로 확대시킨 것 같다.

말로만 행사 진행을 도왔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글을 통해 금·생의 오픈 하우스가 바른 시각으로 재조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근혜 (인문대 인문과학부)

주인의식 부재 강의실 내갓처럼

1교시 수업을 위해 바쁜 걸음으로 강의실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그야말로 '난쟁이' 한 눈에 들어왔다.

어제 무슨 패러를 했는지 몰라도, 케이크의 크럼이 곱탁, 벽, 책, 질상, 칠판 할 것 없이 구석구석에 까지 묻어 있었다. 아, 완전히 케이크 던지기 게임이 벌어진 듯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어지럽혀 놓은 분들(?)이 책상 상은 그냥 두었을까? 나는 책가방을 내릴 틈도 없이 책상 정리부터 하고, 휴지로 크림을 닦

았다. 그런데 그 크림이 며칠 된 건지는 몰라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휴지만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법이 없었기에, 우연은 큰 연이러만 때 놓았다.

만약, 그 크림이 오래된 것이라면 어찌까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학생회관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칠판도 분명 학생들이 갖다놓은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다.

그 이후에나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고공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라도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이주머니가 있어도 은

방관의 주인이리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인의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스쳐 간 자리만 깨끗이 한다면 분명 우리의 등록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록금 투쟁'이라는 거창한(?)것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투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춘희 (인문대 인문과학부)

오늘 길

김현식(고고미술학과 4학년)

현장실습 통해 문화유산의 소중함 느껴 "유물을 소장할 장소 마련 되었으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시계 태엽처럼 숨 거쁘게 살아가는 현대 인과는 달리 이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한 젊은이가 있어 그를 만나 보았다.

현재 본교 경주캠프 고고미술학과(이하 고미사) 4학년에 재학중인 김현식군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곳은 다름 아닌 도서관 1층에 위치한 고미사 실습실이였다.

그는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책상에 앉아 무엇인가를 꼼지락거리며, 머나먼 옛 조상들의 차취를 찾아 여행을 하고 있는 듯 보였다.

고미사라는 이름이 일반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한 말이 있다는 말에 그는 "선사시대 유물의 과거 유적을 복원하는 고고학에 미적인 시각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는 미술사학을 접목시킨거라"며 다소 서투르게 설명한다.

지난 86년에 신설된 이 학과는 현재 전국 7개 대학에 편성돼 있으며, 본교의 경우 특히 선사시대의 문화가 그대로 매장돼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이론적 학습이 아닌 현장실습 위주로 학습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3학년 2학기때부터 발굴 현장에 참여하게 된 그는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옛 선조들의 지혜와 땅이 배신하지 않아서 다루는데 한층 더 조심스러워진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발굴된 많은 유물들을 마땅히 보관할

곳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오늘의 현실을 못내 아쉬워한다. 이는 비단 본교 박물관의 상황만이 아니라 경주시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우선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깊은 황성공원에 실내 체육관을 짓고, 무수한 유물들이 발굴되면 동천동 발굴 현장에 시멘트를 덮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된 석굴암과 불국사가 있는 토함산 기슭에는 대규모의 유력시설을 짓는다고 한다.

동천동 발굴현장에 참여한 그는 문화유적과 관련해 "현행법에는 현장에서 유물이 발견되면 일단 하던 공사를 멈추고 발굴 현장에 그 지역을 발굴 지역으로 지정할 후 출토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눈앞에 놓인 영리만을 쫓는 오늘의 풍토를 지적한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화재 관리법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발굴된 선조들의 흔과 지혜가 모두 소장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될과 동시에 문화재 관리 측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의 상진한 표정에서 또다른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

(정)

박춘희 (인문대 인문과학부)

가운데 크림이 며칠 된 건지는 몰라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휴지만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법이 없었기에, 우연은 큰 연이러만 때 놓았다.

만약, 그 크림이 오래된 것이라면 어찌까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학생회관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칠판도 분명 학생들이 갖다놓은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다.

그 이후에나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고공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라도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이주머니가 있어도 은

방관의 주인이리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인의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스쳐 간 자리만 깨끗이 한다면 분명 우리의 등록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록금 투쟁'이라는 거창한(?)것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투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춘희 (인문대 인문과학부)

가운데 크림이 며칠 된 건지는 몰라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휴지만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법이 없었기에, 우연은 큰 연이러만 때 놓았다.

만약, 그 크림이 오래된 것이라면 어찌까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학생회관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칠판도 분명 학생들이 갖다놓은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다.

그 이후에나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고공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라도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이주머니가 있어도 은

방관의 주인이리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인의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스쳐 간 자리만 깨끗이 한다면 분명 우리의 등록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록금 투쟁'이라는 거창한(?)것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투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춘희 (인문대 인문과학부)

가운데 크림이 며칠 된 건지는 몰라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휴지만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법이 없었기에, 우연은 큰 연이러만 때 놓았다.

만약, 그 크림이 오래된 것이라면 어찌까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학생회관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칠판도 분명 학생들이 갖다놓은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다.

그 이후에나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고공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라도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이주머니가 있어도 은

방관의 주인이리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인의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스쳐 간 자리만 깨끗이 한다면 분명 우리의 등록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록금 투쟁'이라는 거창한(?)것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투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춘희 (인문대 인문과학부)

가운데 크림이 며칠 된 건지는 몰라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휴지만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법이 없었기에, 우연은 큰 연이러만 때 놓았다.

만약, 그 크림이 오래된 것이라면 어찌까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학생회관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칠판도 분명 학생들이 갖다놓은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다.

그 이후에나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고공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라도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이주머니가 있어도 은

방관의 주인이리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인의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스쳐 간 자리만 깨끗이 한다면 분명 우리의 등록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록금 투쟁'이라는 거창한(?)것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투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춘희 (인문대 인문과학부)

가운데 크림이 며칠 된 건지는 몰라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휴지만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법이 없었기에, 우연은 큰 연이러만 때 놓았다.

만약, 그 크림이 오래된 것이라면 어찌까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학생회관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칠판도 분명 학생들이 갖다놓은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다.

그 이후에나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고공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라도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이주머니가 있어도 은

방관의 주인이리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인의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스쳐 간 자리만 깨끗이 한다면 분명 우리의 등록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록금 투쟁'이라는 거창한(?)것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투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춘희 (인문대 인문과학부)

가운데 크림이 며칠 된 건지는 몰라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휴지만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법이 없었기에, 우연은 큰 연이러만 때 놓았다.

만약, 그 크림이 오래된 것이라면 어찌까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학생회관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칠판도 분명 학생들이 갖다놓은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다.

그 이후에나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고공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라도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이주머니가 있어도 은

방관의 주인이리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인의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스쳐 간 자리만 깨끗이 한다면 분명 우리의 등록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록금 투쟁'이라는 거창한(?)것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투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춘희 (인문대 인문과학부)

가운데 크림이 며칠 된 건지는 몰라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휴지만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법이 없었기에, 우연은 큰 연이러만 때 놓았다.

만약, 그 크림이 오래된 것이라면 어찌까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학생회관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칠판도 분명 학생들이 갖다놓은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다.

그 이후에나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고공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라도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이주머니가 있어도 은

방관의 주인이리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인의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스쳐 간 자리만 깨끗이 한다면 분명 우리의 등록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록금 투쟁'이라는 거창한(?)것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투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춘희 (인문대 인문과학부)

가운데 크림이 며칠 된 건지는 몰라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휴지만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법이 없었기에, 우연은 큰 연이러만 때 놓았다.

만약, 그 크림이 오래된 것이라면 어찌까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학생회관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칠판도 분명 학생들이 갖다놓은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다.

그 이후에나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고공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라도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이주머니가 있어도 은

방관의 주인이리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인의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스쳐 간 자리만 깨끗이 한다면 분명 우리의 등록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록금 투쟁'이라는 거창한(?)것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투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춘희 (인문대 인문과학부)

가운데 크림이 며칠 된 건지는 몰라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휴지만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법이 없었기에, 우연은 큰 연이러만 때 놓았다.

만약, 그 크림이 오래된 것이라면 어찌까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학생회관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칠판도 분명 학생들이 갖다놓은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다.

그 이후에나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고공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라도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이주머니가 있어도 은

방관의 주인이리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인의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스쳐 간 자리만 깨끗이 한다면 분명 우리의 등록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록금 투쟁'이라는 거창한(?)것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투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춘희 (인문대 인문과학부)

가운데 크림이 며칠 된 건지는 몰라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휴지만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법이 없었기에, 우연은 큰 연이러만 때 놓았다.

만약, 그 크림이 오래된 것이라면 어찌까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학생회관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칠판도 분명 학생들이 갖다놓은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다.

그 이후에나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고공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라도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이주머니가 있어도 은

방관의 주인이리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인의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스쳐 간 자리만 깨끗이 한다면 분명 우리의 등록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록금 투쟁'이라는 거창한(?)것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투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춘희 (인문대 인문과학부)

가운데 크림이 며칠 된 건지는 몰라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휴지만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법이 없었기에, 우연은 큰 연이러만 때 놓았다.

만약, 그 크림이 오래된 것이라면 어찌까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학생회관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칠판도 분명 학생들이 갖다놓은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다.

그 이후에나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고공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라도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이주머니가 있어도 은

방관의 주인이리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인의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스쳐 간 자리만 깨끗이 한다면 분명 우리의 등록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록금 투쟁'이라는 거창한(?)것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투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춘희 (인문대 인문과학부)

가운데 크림이 며칠 된 건지는 몰라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휴지만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법이 없었기에, 우연은 큰 연이러만 때 놓았다.

만약, 그 크림이 오래된 것이라면 어찌까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학생회관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칠판도 분명 학생들이 갖다놓은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다.

그 이후에나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고공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라도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이주머니가 있어도 은

방관의 주인이리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인의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스쳐 간 자리만 깨끗이 한다면 분명 우리의 등록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록금 투쟁'이라는 거창한(?)것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투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춘희 (인문대 인문과학부)

가운데 크림이 며칠 된 건지는 몰라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휴지만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법이 없었기에, 우연은 큰 연이러만 때 놓았다.

만약, 그 크림이 오래된 것이라면 어찌까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학생회관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칠판도 분명 학생들이 갖다놓은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다.

그 이후에나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고공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라도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이주머니가 있어도 은

방관의 주인이리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인의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스쳐 간 자리만 깨끗이 한다면 분명 우리의 등록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록금 투쟁'이라는 거창한(?)것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투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춘희 (인문대 인문과학부)

가운데 크림이 며칠 된 건지는 몰라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휴지만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법이 없었기에, 우연은 큰 연이러만 때 놓았다.

만약, 그 크림이 오래된 것이라면 어찌까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학생회관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칠판도 분명 학생들이 갖다놓은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다.

그 이후에나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고공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라도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이주머니가 있어도 은

방관의 주인이리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인의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스쳐 간 자리만 깨끗이 한다면 분명 우리의 등록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록금 투쟁'이라는 거창한(?)것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투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춘희 (인문대 인문과학부)

가운데 크림이 며칠 된 건지는 몰라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휴지만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법이 없었기에, 우연은 큰 연이러만 때 놓았다.

만약, 그 크림이 오래된 것이라면 어찌까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학생회관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칠판도 분명 학생들이 갖다놓은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다.

그 이후에나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고공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라도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이주머니가 있어도 은

방관의 주인이리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인의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스쳐 간 자리만 깨끗이 한다면 분명 우리의 등록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록금 투쟁'이라는 거창한(?)것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투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춘희 (인문대 인문과학부)

가운데 크림이 며칠 된 건지는 몰라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휴지만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법이 없었기에, 우연은 큰 연이러만 때 놓았다.

만약, 그 크림이 오래된 것이라면 어찌까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학생회관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칠판도 분명 학생들이 갖다놓은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다.

그 이후에나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고공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라도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이주머니가 있어도 은

방관의 주인이리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인의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스쳐 간 자리만 깨끗이 한다면 분명 우리의 등록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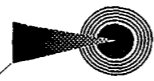
'등록금 투쟁'이라는 거창한(?)것을 내세우며 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투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춘희 (인문대

대선자금 딜레마 정치개혁으로 넘어서야



심익섭
사과대 행정학과교수



시사논단

5·30 대통령담화의 부조리

건 등으로 맥이 빠져버린 국민들에게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 잡아주는 커녕 오히려 불신감과 함께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

92년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후보는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처럼 선거비용 상한선에 미달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이번 담화에서 액수를 밝힐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대선후보 조차도 선거자금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선거비용이 들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쓰고 남은 막대한 자금을 대통령의 차남이 관리해왔다는 사실 또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점에서만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선관위에는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이중의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대선자금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미 비자금 사건 수사때부터, 최근 3개월간 정부·여당의 대응은 대선자금 딜레마를 풀어나간 것이 아니라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입장 뒤집기만을 반복하는 극히 저급한 수준을 맴돌았다. 지난 2월25일 담화에서 김대통령은 과거 후원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 대선자금 공개적으로 가는 듯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전모공개는 어렵다고 꼬리를 내리더니, 속시원히 밝힐 자료가 없다면서 당대표를 통해 슬쩍 국민을 시험한 후, 여론에 밀려 다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결단도 없고 인간적 솔

방책이 아니라 총체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응책을 국민앞에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떨어진 화급한 과제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대선자금의 본체를 밝혀 어두운 과거로부터 완전히 탈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돈맛이 드는 선거같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입법을 관철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담화에서처럼 과거문제에 매달리기 보다는 정치개혁을 상공시켜 재발방지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진정 앞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평범한 진리이다. 이때문에 대선자금 문제와 제도 개선 문제는 분리될 성질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여·야는 물론 정·대중들의 대대적인 97 대선캠페인과 정치개혁 논의가 공허하게 맴돌아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으로는 지방화도 밖으로는 세계화의 열풍에 휩쓸려 버리고 뒤쳐야 할 때에,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기(氣)를 빼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5·30담화는 "남은 임기중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며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맹세의 말로 끝난다. 바라건대 제발 인심쯤 바로 읽고, 그동안 벌려놓은 일말 만이라도 잘 마무리 하겠다는 소박한 자세로 돌아갔으면 한다. 경제불황에다 이제 '정치실체'까지 결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리는 길은 그나마 문민시대를 열었던 김대통령의 마지막 카드에 달려있다.

사설

평화적인 한총련 출범식 보장해야

올해로 5회째 맞는 한총련 출범식은 유사이래 가장 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 지난 30일 한양대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출범식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 전국에서 모인 2만여명의 학생들은 여의차래 한양대로 들어가기 위해 서울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대국민 선전에 나섰다. 3일째 되던 지난 1일 서총련과 지역총련은 고려대에 모여 '출범식사수와 김영삼정권 타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2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향후대책을 논의한 한총련은 오늘(3일)오후부터 한양대에서 한총련출범식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행사가 시작되기 일주일전부터 한양대를 원천봉쇄한 당국은 한양대로 들어가지 못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에게 직격탄을 쏘며 토끼몰이식 진압을 자행했고 이를 항의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직격탄을 마구잡이로 난사했다. 한총련 죽어가는 언론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찰의 원천봉쇄, 강경진압은 축소보도로 일관한 채 '교토체중'과 '폭력시위'만을 집중보도하고 있다. 특히 남총련 학생들이 서울로 몰라오기 위해 기차와 버스를 세워 타고온 것에 대해서는 일체 '기차탈취' 운운하며 폭도로 매도했지만 경철이 전국 중소도시 역과 타미에서 임일이 가깝까지 열어가며 전문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 듯 침묵했다.

어느 시제, 어느 조직에서건 출범식의 의의는 중대한 것이지만 한총련이 이번 출범식에 두는 의의는 예년과 사뭇 다르다. 가장 큰 의의는 작년 8월 이후 계속된 학생운동 탄압으로 인해 위축된 학생운동 역량을 재점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87년 6월항쟁 10주기를 맞아 다시한번 전민항쟁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의지는 결국 '한보비리, 대선자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김영삼 대통령 조기퇴진운동으로 귀결되는데 정부가 그로써 출범식을 탄압하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그러나 정부의 한총련탄압책은 5.30대통령담화에 대한 대국민 반응처럼 스스로를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백만학생 축제의 장인 출범식장소를 원천봉쇄함으로써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평화적인 출범식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최루탄과 직격탄을 난사함으로써 '대선자금 공개, 김영삼 하야'의 목소리를 오히려 높여 주었다. 한총련은 이미 작년 8월이후 학생운동의 노선과 운동방식에 대해 충분히 자상하고 있음을 시인했고 이번 출범식 역시 이 선상에서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예년보다 강도높은 탄압으로 출범식을 가로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명분없는 출범식 탄압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한총련출범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학생회관 24시간 개방' 표류

야간잔류 신청제있어 전면개방은 무리 동연내 반대의견부터 수렴해야

'학생회관 24시간 개방'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제 13대 동아리연합회(회장=김명희·역목) 이하 동연은 학생회관을 24시간 개방해 달라는 공문을 학교측에 보냈고, 이에 학교측은 24시간 개방을 허용할 수 없다는 회답을 했다.

논란은 지난 4월 17일 동연 1/4분기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 기탁간담 상정 때 한 동아리 대표자의 '학관 개방' 요구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대표자가 폐쇄가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거세게 반대를 했고, 다수의 대표자들은 그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런 찬·반 논의는 학관 개방에 대한 원칙과 준수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짧게 끝났다.

그 후 동연은 학생회관 24시간 개방에 관한 설문지를 배포해 22개 동아리

에서 35장을 받아 분석한 결과 6장만 찬성하고 29장이 찬성이었다. 이 설문조사결과와 제의배경, 동연학관개방에 대한 당위성·원칙 및 준수사항, 타학교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문을 지난 5월 15일 학교측에 보냈다. 이 공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학생자치보장'으로 설명하고 있고, 원칙 및 준수사항은 △철저한 문단속으로 도난을 미연에 방지 △기연성 물질 사용금지 △화재 방지 △도난에 대한 책임은 각각의 동아리에 있음 등이다.

그러나 6일후인 21일 학교측의 회답은 '안된다'였다. 도난과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학생회관이 술집이나 도박판, 잡자리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학생과 직원 정경삼씨는 "도난, 화재, 음주, 기숙, 노를 등 관리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며

"현재 야간 잔류신청이 되는 상황에서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학관개방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또한 몇몇 동아리가 학생회에 '개방 불가'의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회관 개방에 대한 동연과 학교측간의 논란 이전에 동아리 연합 내에서도조차 찬·반 양론의 우열이 가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크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동아리는 서도회(회장=하승기·공학계열)이다. 학생회관을 개방하면 분실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서도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여러개의 작품이 하나에 수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여서 분실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액수가 엄청날 것이라는 근거이다. 서도회 회장 하승기군은 "분실사고는 비단 우리 동아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밤을 새우며까지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라고 역설한다.

학교측의 불가입장에 대한 대안으로 동연은 여론을 수렴해 3천동아리인의 의사를 모아 다시 공문을 보낼 계획이지만 그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은 반대론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이었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문화대의 한 학생은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동아리실에서 술판이 벌어진 모습이 볼듯 뻔하다"고 우려하는 등 여러 학생들이 그러한 모습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학관개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같은 동아리 내에서도 찬·반 양립으로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동아리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일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관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되지 않는다. 3천동아리인들이 모두 찬성을 해도 학교측에서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할 때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관개방 주장의 가장 커다란 취약점은 '야간잔류 신청 제도'에 있다. 부득이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밤 11시 이후에도 동아리실에 남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관개방을 주장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의견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생의 자치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부각될 가능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도난과 화재는 둘째치고, 학생회관 분위기가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우려되는 점이고 학생자치규율대를 운영한다 해도 문제점을 1%씩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학생회관 24시간 개방'과 '현 체제 유지' 중 무엇이 진정한 학우들을 위한 것인지를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용환 기자)

중국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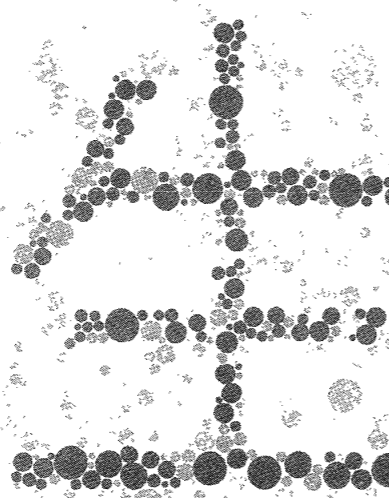


입장표명 II

생명보험은 생활입니다.

생명?

생명보험은 행복을 위한 필수품!
아직도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미래가 불안한 '생명(生盲)'입니다.



생명보험 TV광고 아이디어 공모

돈만 미래 준비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행복을 위한 필수품! 대학생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많은 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 주십시오.

1. 대상

전문대이상의 대학생(광고 동아리), 생명보험업계 종사자(생활실계사/영업소장 등) 및 관심있는 일반인

2. 응모방법

- 광고주제: 위험보장보험 + 연금보험
- 사고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십시오. 노후는 결코 먼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후는 생명보험으로 자신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돈만 미래준비,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 응모요령: TV광고 아이디어를 콘피 또는 A4지 1매 내외로 정리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기간: '97년 6월 30일(월)까지
- 응모처: 생명보험협회 홍보부,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1 국민빌딩 16층.
- 수상작 발표: 월간생활(생명보험협회지) '97년 7월호에 발표 및 회원사 홍보부, 대학 학과사무실을 통한 개별 통보.
- 심사: 심사위원은 학계 및 광고계의 권위자로 위촉함.
- 문의: 생명보험협회 홍보부 (02)275-6051, 진애드 기획국 (02)514-1002

3. 시상

- 대 상(1명): 상금 500만원
- 우수상(2명): 상금 각 200만원
- 장려상(5명): 상금 각 30만원

■ '96 생명보험 TV-CM 『생명보험 생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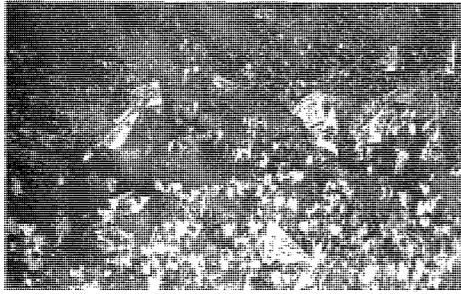


오세훈 시고는 없기 않습니다
노후는 멀리 않습니다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십시오
인정되고 존엄로운 미래를 위해
이제 생명보험은 생활입니다. NA 생명보험

※ 제출된 모든 작품은 본인이 참가하여 작품에 관련된 아이디어 등 저작권을 생명보험협회에 귀속됩니다.
※ 제출시 우송상자에 응모지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선된 아이디어를 살릴 수 있는 요령이 있다면 요청할 때 그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생명 / 제일생명 / 삼성생명 / 흥국생명 / 교보생명 / 동아생명 / 대신생명 / 태평양생명 / 국민생명 / 한덕생명 / 한국생명 / 신한생명 / 동부생명 / 동양생명 / 코오롱-메트생명 / 고려생명 / 삼성올스타생명 / 영풍매뉴라이프생명 / 고협뉴욕생명 / 한성생명 / 조선생명 / 금호생명 / 중앙생명 / 국제생명 / 두원생명 / BYC생명 / 태양생명 / 한일생명 / 네덜란드생명 / 푸르덴셜생명 / 프랑스생명 / 라이너생명 / 아메리카생명

II 생명보험협회



제5기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출범식 상황

본교 한총련 출범식 참가단의 2박3일



- 5월30일**
- 14시 30분 : 분당안 한총련 출범식 참가단 출정식
 - 16시 : 학내 선전전
 - 18시 : 강변역 서남총련 거리 선전전
 - 20시 : 종로 5가 서총련 집회
 - 21시 20분 : 상왕십리 한양대 집합을 위한 시위
 - 22시 : 고려대로 서총련 및 지역총련 이동
- 5월31일**
- 0시 30분 : 중앙대로 서남총련 이동
 - 02시 : 서남총련 '한총련 출범식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
 - 03시 : 취침
 - 07시 : 기상
 - 10시 : 각 학교별 결의대회
 - 12시 : 서남총련 결의대회
 - 15시 : 대학로로 이동. 서총련 및 지역총련과 결합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 대회' 참가
 - 16시 30분 : 동대문 운동장 방학 이동
 - 18시 40분 : 서총련 및 지역총련 동국대로 이동
 - 21시 : 중앙대로 이동, 각 학교 정리집회
- 6월1일**
- 02시 : 취침
 - 07시 : 기상
 - 10시 : 각 학교별 결의대회
 - 12시 : 홍석동 거리 선전전
 - 13시 : 중앙대 대학극장 서남총련 결의대회
 - 16시 30분 : 상왕십리 한총련 한양대 진격 무영
 - 17시 30분 : 신림동으로 이동
 - 19시 : 청계천 일대 시위
 - 22시 : 고려대 진입 한총련 출범식 사수 결의대회 개최

◇ 언론보도 진단

언론이 '한총련 죽이기'에 나섰다 편파·왜곡보도... 편향된 시각 버려야

언론이 또다시 '한총련 죽이기'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다. 한양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5기 한총련 출범식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작년 8월 연대합창에서 한총련을 마녀사냥하듯 몰아부친 언론은 이번 5기 한총련 출범식을 두고도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듯 작년과 같은 보도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총련 트럭을 잡아라'

한총련 출범식 전야제가 있기 전 29일까지의 보도를 보면 언론은 대체로 사실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던 편향된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 주 들면서 사회면에 짙은 단신을 시작으로 28일자 신문에 '한총련 트럭을 잡아라'라는 제목 아래 트럭까지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는 출범식 준비 물품 반입을 막으려는 경찰과 한양대 외에 출범식이 예상되는 학교측의 입장을 중시하며 마치 출범식개회 자체가 폭력적인 것처럼 보도했다.

중앙일보나 한겨레 신문, 서울신문 등 나머지 일간지들은 그다지 많은 비중을 두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출범식 관련 상황을 팔막하게나마 보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사들은 한총련 출범식을 일관불태한 상황을 예기하며 그에 대한 경찰의 당위성에 중점을 두고 한총련의 입장은 이에 반박하는 정도로 쓰고 있다. 또 경찰의 불법검문에 대한 부당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경찰 측에서 얘기하는 이적성과 불법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제목에 있어서도 '출범식 막을 맨 거리에서' '한총련 출범식 긴장' 등 선풍적인 제목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출범식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행태가 작년 연대합창 때와 다른점은 주로 한총련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출범식 관련 기사를 실으면 서도 그 주위에는 항상 '이화여대 출범식 불참 선언' '호남대 총학 괴상' '반 한총련 조직 탄압' 등 한총련의 혼란과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이화여대나 호남대 등은 한총련 내에서 차지하는 입지가 크지 않음에도 유수 일간지에서는 한총련이 곧 분과별 조직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 지난 6월1일 오후 10시경 한양대 진입에 실패한 한총련 학생들이 고려대에서 '출범식 사수'와 김영삼정권 타도를 위한 백만학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삼업주의에 충실한 보수언론

이에 대해 김유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는 "언론은 한총련의 불법성과 이적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왜 한총련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 또 한총련이 하는 다른 행사는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간사는 "삼업주의에 충실한 이런 보수 언론들에 대해 불매 운동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펴쳐야 한다"고 말하며 현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다.

출범식 전야제가 예정되었던 30일 이후의 한총련 관련 기사들은 이전까지의 '한총련 죽이기' 방침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인다. 31일자 일간지들은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남총련)의 동향을 특화시켜 마치 영화 줄거리를 소개하듯 과장된 보도자태로 일관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남총련, 열차 강제정차'라는 제목하에 남총련학생들의 열차탑승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고 보도하며 열차내로 스며든 최후가스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렸다. 이에 대해 남총련의 한 학생은 "열차에 탑승한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다면 무척 죄송한 일이지만 많은 승객들이 우리들의 생각에 박수와 함께 격려해주셨다. 시민들이 있는데도 아랑곳없이 최후가스를 난사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한총련출범식 장소인 한양대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편향된 자세로 일관했다. 폐쇄된 정문을 열기 위해 토끼걸음으로 정문으로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최후가스를 난사했고 이런 과잉진압은 심지어 이를 만류하는 민가협 어머니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의 평화시위에의 노력과 경찰의 무자비한 과잉폭력은 보지 않고 학생들의 화염병만을 포착 폭력성을 왜곡보도하는 언론의 모습이다. 또한 한총련집회에 대한 최고의 반과이론으로 제시되는 교통불편도 어김없이 등장하며 기사의 가장 기본적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부연없이 단순히 결과만 확대하는 보도자세도 이전까지와 다를바 없었다.

정권의 대변인 역할 이제 그만

작년 8월 한총련에 유단폭력에 가까운 맹공을 퍼부은 보수언론들은 올 한총련 출범식을 두고도 그냥 지나칠 태세가 아니다. 전야제가 있던 30일 오후동안 비폭력 시위로 전경들에 대한 한양대생들의 모습을 단 한줄도 실지 않은 언론을 보면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언제까지 언론은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라도 언론은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회부)

"예전보다 시민들이 적극적이다"

한총련 출범식에 참가하기 위해 경찰의 삼엄한 통제를 뚫고 30일 부산에서 상경한 부산경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소속 이무진(인제대·가평)군은 중앙대에서 만났다.

- 서울까지 올라오기 힘들었을텐데, 그 경로는?
- = 택시를 나눠 타 진영역으로 가서 가차로 타고 평택까지 왔다. 평택에서 시외버스로 오산까지, 다시 성남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왔다. 성남에서 전경과 대처하던 중 16명이 연행되었지만 다행히 오늘(1일) 모두 풀려났다

-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 것 같은가.
- = 부산에서 택시를 탔을 때 택시기가사 우리들에게 "왜 학생들은 데모를 안하냐?"고 말할 정도로 예전보다 시민들이 적극적이다 것 같다.

-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김영삼 정권의 현실이다.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5·18사건, 한보비리등 많은 사건들로 하여금 형 정권은 민심을 잃은 것이다.

- 출범식을 아직 못지르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 = 무슨일이든 시적이 중요하다. 이번 출범식을 5기 한총련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꼭 성사시켜야 한다.

"국민의 호응이 학생들에게 가장 큰 힘"

대학로에서 학생들의 집회장면을 보던 이상현(63세·역술가)씨를 만났다.

- 정부에서 한총련 출범식을 원천봉쇄한 것에 대한 생각은.
- = 정부가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것을 보여준 단적인 예이다. 평화적 출범식을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 지금 열리고 있는 집회에 대한 견해는.
- = 4·19는 학생 운동이 부패 정권을 바꾼 예이다. 지금의 학생운동은 그때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 같다.

- 만약 재나거 데모를 한다면.
- = 정의를 위한 행동이라면 말리지는 않았다. 한국사회에서 학생운동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시민과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 = 4천만 국민이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학생들의 가장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김기영 편집장
김용환 기자
오인택 기자
최진 기자

유철주 기자
김미경 기자
조은순 기자

특별취재반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미래 - SK Telecom



"김영우 선생님의 책임감"

아마추어 무선(HAM)을 이용, 오지에서도 활용가능한 무선데이터통신 방법을 고안한 제1회 M&M 논문대상 수상한 김영우 선생님 (당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재학), 태백산 오지에 위치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정보통신의 혜택을 주고 싶다는 책임감이 그에게 논문을 쓰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미래를 책임질 SK텔레콤이 이제 정보화사회의 혜택을 넓히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두번째 M&M 논문을 기다립니다.

제2회 M&M 논문대상 공모

- 응모자격**
국내의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생
- 논문주제(아래 주제중 택일)**
 - 멀티미디어 기반구조로서 이동통신의 발전 방안
 -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이동통신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Marketing 전략
 - 국내 정보통신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Multimedia 서비스 구현 방안
 -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
- 논문분량**
 - 본문: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A4 Size 20매 내외)
 - 요약문: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A4 Size 3매 내외)
- 시상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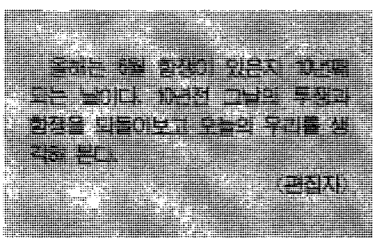
등위	인원	상금	부상
대상	1	1,000만원	상패
우수상	1	각 500만원	대형상장액 견학, 기념품
득상	2	각 300만원	기념품
참가상	5	각 200만원	상패, 기념품
정려상	10	각 100만원	
- 논문작성비 지원**
 - 단체접수: 편당 10만원
 - 개인접수: 편당 5만원

- 심사**
 - 1차: 서면심사
 - 2차: 논문발표 심사(단 1차 통과자에 한함)
- 접수기간**
1997년 8월 18일 ~ 8월 22일
- 논문 접수처 및 문의**
 - 주소: (100-095)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267 SK텔레콤 홍보실 M&M논문대상 담당자
 - 전화: (02)3709-1966 ~ 8
 - * 우편 접수도 가능 (편의가능한 전화번호 필히 기재)
- 기타**
 - 접수시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 응모논문은 창작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함
 - 단체접수시는 반드시 대학(원)장의 공문 제출
 -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SK텔레콤 소유임

주최: SK Telecom ● 東日日報社
후원: 정보통신부

SK Telecom

● 경북 봉화군 심운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과 김영우 선생님



◇ 6월 항쟁의 시작, 전개, 그리고 끝

유린당한 인간 존엄성 · 되찾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

명동성당 시위, 항쟁의 도화선... 6·29선언으로 이어져



◇ 87년 6월 26일, 서울역주변에서 학생·시민들이 진경들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1987년 6월 10일, 잠실체육관에서는 민정당 대통령후보로 노태우 대표가 선출된 지경 대회, 성공회 상담안에서는 '박정철군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 철폐'를 위한 국민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경찰은 6·10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경찰병력을 총동원하여 이를 원천봉쇄했으며, 이 날 학생들은 오후 1시경 '파소하의 개헌 반대 혁명'으로 제헌의 회를 의지하며 명동 신세계백화점 앞과 국도국장 앞으로 이동하여 경찰과 격렬한 진위를 벌이는 등 거리시위는 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밤이 되자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고 이는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주요도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지역에서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가두시위로 발전하게 됐다.

거리에서 쫓겨 명동성당으로 들어간 8백여 명은 계획에 없던 일이라 오후 11시경 해산 의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대가 해산할 기미가 없다고 판단, 농성자들을 전원 연행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최루탄을 쏘며 성당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부상당했고 서울대, 경희대 등 일부대학 학생들이 명동성당 농성 학우 구출투쟁을 전개하게 되었고 이 투쟁이 5박6일간 계속되어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6·29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20여일간 계속해 전국 34개 시와 4개 군 이상의 지역에서 시위와 집회가 열렸으며 이는 연인원 4-5 백만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민주항쟁이었다.

이렇듯 각계 각층에서 6월 항쟁에 참여하자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는 "조속히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6·29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다수의 야당인사와 재야의 원로들은 "정권의 항복선언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야의 젊은 실무자들은 "6·29선언이 가지고 있는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양 김씨만 분열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6·29선언을 받아들여기로 결정했으나 6·29선언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야당의 분열로 인해 비랑 끝에 몰렸던 지배 세력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고 민간정부의 출현을 기대하며 양 김씨의 보수야당이 투표했던 유권자들은 심한 패배감을 맛보아야 했다. 그러나 크게 보면 6·29선언은 분명 국민이 투쟁하여 얻은 정당한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과 민주세력이 지배세력으로부터 얻어낸 최초의 승리로 평가된다.

6월 항쟁은 30년 가까이 계속된 군사독재 하에서 무참히 짓밟힌 인간의 존엄성과 철저히 유린당한 언론·출판·결사·사상의 자유를 요구하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바람은 누구나 수용하고 지킬 수 밖에 없는 대의명분으로 작용하였다.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 저지를 바탕으로 시작된 운동은 1월 14일 박정철 고문살인사건을 계기로 대중적 항의와 투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 상황에서 4·13호헌조치가 발표되자 가계중에서 '식국선언'이 발표되어, 직선제 개헌과 더불어 군사독재 종식을 반대

시 관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6월 항쟁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6월 항쟁은 청년학생들이 선두에 나서지만 사무원, 학생, 생산직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영세업자, 여성, 종교인 등 어느 특정계층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았고 한국 민중 모두가 그 주체였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전 국민적인 반독재 민주화 투쟁은 반의세·자주화 투쟁으로 발전하였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투쟁은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하면서 각 부문 운동이 하나의 전선으로 결집되어 대중조직의 강화, 대중투쟁의 고양이라는 성과를 획득하였다.

(심미선 기자)

◇ 6월 항쟁 취재기

"불발 최루탄이 쓰레기처럼 나뒹굴었다"

공권력 폭압속 1백만 군중모여 '민주화' 한 목소리

87년 6월 10일. 그 날은 해방이후 우리 근대역사에 있어 또 하나의 획을 그은 역사적인 날이다. 6월 항쟁은 4·19의 정신을 계승한 것은 물론, 80년 이후 군부독재에 맞선 민중의 가장 큰 투쟁사건이다. 이는 87년 이전부터 결집되어온 민중의 민주화투쟁에 대한 산물이기도 하지만 대투쟁이 있기까지는 크게 몇몇의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13호헌조치 이전 박정철군 고문살인 은폐 사건이 있었고 이후 5월 광주항쟁 계승투쟁이 있었다. 특히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군주위에 맞아 쓰러진 것으로 6월의 범민주연대세력의 민주화 투쟁은 절정을 이루게 된 것이다.

6·29선언의 의의에 대해 역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편의상 노태우 씨가 한국의 정치 권력에 대한 정권유지차원의 기만선언으로, 또한 민주화를 갈망했던 민중들에 대한 항복의 의미로 보고 싶다.

따라서 6·10항쟁보다는 6월 항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며 87년 3월이후부터 6월 29일까지의 취재기를 요약한다는 것은 그날의 투쟁을 과소평가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마저도 든다.

6월 항쟁이 가장 절정에 달했던 시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로 기억된다. 해방이후 사상 최대인 수십만의 민중이 20여일 가까이 투쟁에 가담했던 것은 초유의 일이 될 것이다. 아니 우리 한국 역사를 위해서라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6월 10일 당시의 투쟁은 일부 지역중심적 운동이 아닌 범국민적이었으며 전국 각 지방에서 조직적인 의식 속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국 34개시와 4개군에서 총 1백40만(당시 운동본부 집계)이 참여한 이 시위는 당시 정권의 4·13호헌 철폐를 물론, 대통령선거법 개정, 김대중씨의 사면 및 복권, 언론자유 보장,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대학의 자율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보장, 파간한 사회정치조직 등을 포함한 것으로 당시 정권에서는 군부개입을 고려했을 만큼 일종의 백기를 든 셈이다.

과거 역사를 보면 민주화에 가장 앞장섰던 것이 학생들이었다. 근대들이 학생운동의 토조기는 시대가 분분한데 학생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4·19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것이 학생이었다. 그러나 작년 8월 정부의 원천봉쇄 속에서 범민족대회를 치루고 나서 많은 탄압을 받았으며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운동 최대의 고향은 청년다운 순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권의 개입없이 민주주의를 버리는 학생들이 초지일관 그 순수성을 지켜나갔으면 한다. 또한 너무 전략적이 않으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운동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최진 기자)

인터뷰 '6월 민주항쟁 10주년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 김중태(63)씨를 만나

'6월 항쟁은 필요하다'



진행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우선 단선적 기념사업을 치루는 것이 아

니라 6월정신을 계승하여 오늘에 다시 그 의미를 살려내려는 목적으로 학술토론회, 6월 항쟁의 주인공 찾기 운동, 6월 대중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 87년 6월항쟁 이후 10년이 지났다. 정치·문화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본적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본다.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외쳤던 6월항쟁은 민주화 운동의 촉매 역할을 했다. 전국민이 민주화를 요구함에 따라 6·29선언이 발표되었으며 군부정권이 물러나고,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또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다. 이로써 사람들은 많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근대 노동법, 안기법 등의 계약과 같은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직도 한참이나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 국민정권 수립 4년 후 민주적 발전상을 되찾아 본다

= 현재 박정철신드롬이 일고 있는 걸로 안다. 박정철정권은 독재로 국민의 인권을 말살한 정권이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 국가 사회의 구실을 이루고 명확한 국가목표를 제시했다. 반면 문민정부의 김영삼정권은 어느 것도 오히려 세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보 비리, 김형욱씨 구속 사건, 대선자금 비공개 등을 볼 때 민주화의 폭을 넓히지 못했으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퇴조시킨 정권이라고 생각된다.

- 현재 민주화 운동에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이점에 있어서는 40년을 기지생활로 보면 내기가 더 부끄럽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는 독재에 의한 폭압에 맞서 진실을 보도하지 못했다. 그러

나 지금 언론은 자발적으로 지배체제를 강화하며 스스로를 구축하고 있다. 민중전체, 국민전체를 위한 언론의 자유가 아닌 언론사의 이익을 위한 방증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몹시 안타깝다.

- 과거 역사를 보면 민주화에 가장 앞장섰던 것이 학생들이었다. 근대들이 학생운동의 토조기는 시대가 분분한데 학생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4·19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것이 학생이었다. 그러나 작년 8월 정부의 원천봉쇄 속에서 범민족대회를 치루고 나서 많은 탄압을 받았으며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운동 최대의 고향은 청년다운 순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권의 개입없이 민주주의를 버리는 학생들이 초지일관 그 순수성을 지켜나갔으면 한다. 또한 너무 전략적이 않으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운동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최진 기자)

사회 봉사단원 모집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일 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일. 이 모두가 우리 젊은이들의 몫입니다. 동국참사람 봉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재학생, 교수, 직원
- 기간: 1997. 6. 2일부터
- 접수처: 학생처 장학과 (문의 전화: 260-3050, 3051)
- 봉사기간: 봄학기, 여름방학, 가을학기, 겨울방학 (별도신청)
- 기간내에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은 평가결과에 따라 학점 (1학점)을 부여하며, 취업·진학에 위한 사회 봉사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여름방학 사회 봉사활동 신청서를 접수 중입니다.
○ 봉사대상단체와 봉사기간 및 시간을 본인인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봉사외 손질이 필요한 봉사대상단체도 추천받고 있습니다.

동국참사람 봉사단장

낙산학사 개장 안내

- 개장기간: 95. 7. 1(화) - 8. 18(월)
- 시설현황:

구분	서울캠퍼스	경주캠퍼스
교직원실(1실 5명)	11실	3실
학생실 (1실 20명)	7실	3실
- 신청서 접수내용

구분	접수처	접수기간	실배정방법	사용관리비
교직원실	관재과	'97. 6. 17	접수순으로	3'약4월. 30,000
학생실	학생과	-6. 19	배정함	121'약. 1,500
- 일정표

1회	7. 1-4	2회	7. 4-7	3회	7. 7-10	4회	7. 10-13
5회	7. 13-16	6회	7. 16-19	7회	7. 19-22	8회	7. 22-25
9회	7. 25-28	10회	7. 28-31	11회	7. 31-8. 3	12회	8. 3-6
13회	8. 6-9	14회	8. 9-12	15회	8. 12-15	16회	8. 15-18
- 유의사항

가. 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 직계가족외에는 이용할 수 없음.
나. 실 배정은 사용신청서 접수순으로 배정하여 별도의 추첨은 하지 않음.
다. 사용신청은 재학생의 경우 10인 이상의 단체로 한함.
라. 교직원실의 사용관리비는 신청서 첨부하여야 하고, 재학생의 경우 신청서 1면 5천원의 접수비를 납부하여야 함.
마. 취사도구는 개인별 지참하여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재과(260-3081)이나 학생과(260-3047)로 문의

고시장학생 선발시험 공고

아래와 같이 97학년도 2학기 고시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일시: 97. 6. 28(토) 9:00 - 12:00
- 장소: 시험당시 계산소시학사 계산관에 공고
- 대상: 본교 재학생 및 복학생
- 원서접수기간: 97. 6. 18(수) - 6. 27(금) (8일간, 단. 토·일 제외)
- 접수처: 계산고시학사 사감실(2층)
- 선발인원: 60명(선발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각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이 60점이상인 자로서 본교 장학규정에 의거 직전(直前) 학기 17학점 이상 취득자
- 시험과목

행정고시	전학년	영어, 헌법, 국사
외무고시	전학년	영어, 헌법, 국사
사법시험	1학년	외국어, 헌법, 민법총칙
	2학년	외국어, 헌법, 민법총칙, 형법
	3·4학년	외국어, 헌법, 민법, 형법

※ 사법시험 외국어 영어, 독어, 일어, 불어, 중국어 중 택일
8. 원서 접수시 학생증(신분증)과 사진 1매, 도장을 지참할 것.
※ 복학예정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것 (유학 전학기에 장학금을 수혜받아 등록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9. 고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필히 해당고시에 응시하여야 함.

97년도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초청 강연회

- 21세기 한국 사회를 위한 버전 -

초청강연회

- 사회·경제 부문: 이한구 (대우 경제소 소장)
주제: "새 시대의 경제 정책"
일시: 6월 2일 15시 학술문화관 3세미나실
- 정치·통일 부문: 이부영 (국회의원)
주제: "오늘의 난국과 한국정치의 과제"
일시: 6월 3일 15시 학술문화관 3세미나실
- 문학 부문: 조정래 (소설가)
주제: "민족문학의 역사"
일시: 6월 4일 14시 학술문화관 3세미나실
- 문학·예술 부문
김동수 (영화 감독)
주제: "사회과학과 영화"
일시: 6월 5일 16시 학술문화관 3세미나실

*영화강연: 시간은 오레 지속된다 (오후 2시 제 3세미나실)
심광현 (미술평론가)
주제: "테크노 문화와 이미지의 문화 정치"
일시: 6월 9일 17시 학술문화관 3세미나실

단편 기획 영화제

- "세상을 발로 차서 거꾸로 엮기"
- 6월 2일
- "가면차사(24분)" "백색인(18분)" "지하생활자(15분)"
- 6월 3일
- "나미스테 서울(18분)" "백일몽(20분)" "카드이야기(18분)"
- 6월 4일
- "슬픈 열대(24분)" "먹이(26분)" "안개(15분)"

△ 시간: 오후 8시부터
△ 장소: 대학원 학술문화관 광장 (야외무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제 13대 총학생회

창업(벤처기업 포함) 특강 안내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는 요즘 다양한 미래를 개척하고 스스로 직장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심어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특강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 및 동국인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다 음

- 특강일시: 1997. 6. 3(화) 오후 3시 - 5시
- 장소: 동국관 L501 강의실
- 참석범위: 재학생 및 관심있는 전 동국인
- 강사: 박 춘 업 교수(정보산업학부)

학 생 처 장

동국대학교 고시지도 위원회

동국대학교 고시지도 위원회

동국대학교 고시지도 위원회

우리춤 대공연에서 보여진 '이매방' 선생의 춤사위 세련된 멋·정갈한 몸짓 세계 으뜸

이 선 옥
뉴욕대 예술학 교수

제 1회 정통 우리춤 대공연(이매방류 중심으로)이 5월 19일 오후 5시 개교90주년 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대학원 주최로 열렸다. 이 공연은 무형문화재 제 7호(승무)와 97호(살풀이)인 이매방류의 춤사위를 계승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뜻깊은 행사로서 문화예술대학원 재학생인 김명자씨, 법우스님, 박기순씨, 유숙희씨 등의 멋진 춤사위로 정통 우리 춤판이 벌어졌다.

이매방(우봉)선생의 춤사위는 그 멋과 미적 감각이 흥을 초월한 가장 세련된 한류의 빛과 같은 경이에서 펼쳐진다. 단박하면서도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춤을 우려내는 그는 세계의 명인임에 틀림없다.

이번 공연에 선보인 작품들은 살풀이, 입춤, 검무, 승무등이다. 살풀이는 너무도 독특한 화려하여 마치 화창한 봄날 햇빛을 보는 듯 정경고 화사한 느낌을 주었다. 그 감미롭고 그윽한

빛깔의 향기처럼 우리 조상의 한과 영혼의 넋을 흰수건에 담아 구구절절이 풀어가는 그 애간장을 여우는 듯, 그 맺힌 한을 달래주듯, 그 빛깔을 한껏 두인 채로 풀어내듯, 그로써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역동적인 감정을 한없이 남김없이 풀어헤치는 듯 하다. 그렇게 추고나면 막힌 물이 졸졸 흐르듯 천년묵은 용이 승천하듯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는 다 풀어 '봉창주' 빠른 자진모리 장단에 물과 넋을 엮고 돌고 감고, 풀어져 높은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 그래서 살풀이 춤은 또한 한국 역사속에 여성의 피맺힌 한과 억울했던 감정의 파리를 산산히 풀어헤치는 데 그 묘미가 있다. 한많은 여인의 저런 뼈 마디마디에 골이러진 오장육부가 눈 녹듯이 녹아내려, 빠른 장단으로 발끝과 손끝이 흰 명주수건에 묻어 떨어져 그 애환한 여인의 넋은 한을 풀고 저 멀리 극락세계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김명자씨의 살풀이는 차분한 태도와 결코 격하지 않은 감정의 절제로 20분간을 그토록 애절한 구름소리와 처절하게 끊어내는 아쟁소리, 뼈를 여는 듯한 대금소리에 맞추어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입춤은 이매방류의 독특한 기본 동작들을 모아 보편/구름에 맞추어 즉흥적으로 추는 다양한 동작과 묘미를 나타낸 춤이다. 박기순씨와 유숙희씨는 각자의 개성과 특색을 잘 살려 정갈한 한국 여인의 모습으로 입춤의 묘미를 아름답게 살려내었다.

검무는 호남류의 쌍검무로서 박기순씨와 유숙희씨는 각각 느린 장단과 빠른 장단에 맞는 쌍검의 묘미를 서로 주고 받으며 오랜시간을 빈틈없이 잘 소화해냈다.

승무는 이매방 선생의 춤사위를 대표할 만한 예술적 가치와 그 미적 감각으로 세계 어느 곳에 갔다놓아도 손색이 없는 한국 제일의 명무(남성)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느린 춤사위와 심금을 울리는 북춤으로 이루어진다. 이 춤은 불교 의식 무용에서 그 영향을 받아 유래한 것으로서 기법이 독특하며 구성 또한 체계적이다. 또한 흰 장삼과 고깔, 그리고 붉은 띠를 두르고 추며, 그 음악은 열불(박자)장단에서 시작하여 도도리, 타령, 잣은 타령, 자귀리, 북치기, 자귀리장단 등으로 맺는다. 승무의 내용은 속세에서 지은 죄를 절대적인 부처님께 속죄하고 업을 닦아 속세

와 인연을 끊고 아무 것에도 구애 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기 위한 수행인의 모습, 즉 번뇌를 씻고 해탈의 경지로 몰입하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이매방류의 북장단은 구성노리, 당악, 마당노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북장단은 구성지고 멋있고 힘차기로 거의 한국의 국악이라 말할 수 없다.

법우스님(승자심)의 승무는 박력있고 진지했다. 법우스님의 북소리는 너무도 정밀적이면서 호소력이 있어 듣는 이에 마음을 사로잡게 하였고 그의 춤새는 긴 장삼으로 공간구성을 힘있게 처절하게 구사하였으니 그의 춤새는 성을 초월한 증상에 가까운 멋을, 역시 이매방 선생의 멋을 잘 대표하고 있었다. 더욱 마음을 끈 것은 승속을 떠나 부처님의 뜻을 춤으로 표현하고 공양하고자 하는 수행자와 포교사로서 법우스님의 진솔한 자세는 참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승무기의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러한 공연의 기회가 많이 이루어져 본교 문화예술대학원 한국전통예술의 발전과 앙상에 학구적, 예술적 밀거머리는 것이 선각자로서의 가량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락음악 수용과 비평에 대한 그릇된 편향 무조건적인 저항성 부여... 가사에 대한 집착 극복해야

음악을 사기 위해서 자주 이용하는 곳이 있다. 이데 전철역 근처에 '파워스테이션'이라는 곳인데 처음 갈 때만 해도 정말 놀랐다. 규모도 규모였지만 무엇보다 놀란 것은 락과 헤비메탈 음악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확실히 최근에 락 음악을 듣는 인구가 많아졌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보고, 문화평론가들의 열성분자들이 전파하고 있는 '락의 부흥'이라고 운운하기에는 좀 조심스럽다. 하지만 음악 판매량이나 콘서트에 가 보면 그 분위기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일단 음반을 구할 수 있는 경로가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고, KBS의 쇼에 시나위가 나왔거나, 크래쉬가 SKC와 같은 큰 레이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뿐만 아니라 2, 3년 전부터 대중문화평론가 일각에서 형성·유포된 락 담론과 민중음악, 노래운동 진영에서의 락 음악에 대한 주목과 시도, 그리고 흥대 근처를 중심으로 변창하는 클럽 문화도 지금의 변화에 한몫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락 음악을 수용 혹은 비평하는 그들 중에는 두가지 그릇된 편향이 있다고 본다. 한 부류는 락 음악 자체에 근거 없는 저항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스타 평론가들이다. 그들은 주로 세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전인수적인 해석의 전형과 가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한국적인 락'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아전인수적인 해석의 전형의 대표적 예로는 핑크리더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핑크리더는 70년대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던 당시의 경제상황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던 젊은이들의 분노와 절망의 감정을 직설적 언어와 단순한 리듬으로 표현한 음악이다. 때문에 핑크리더는 꼭 구성이 대체적으로 간단하고 누구나 즐기기가 쉽다. 즉 누구나 쉽게 작곡



하고 연주할 수 있다. 이러한 핑크리더의 특징을 보고 그들은 '평등정신'이라고 운운한다. 한마디로 뮤지션들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아전인수적인 해석의 전형이고 전체적 측면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다.

둘째로, 그들은 가사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가요의 고질적 문제점이 항상 똑같은 사랑타령만을 늘어놓는 데 있다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외국어의 락 음악의 경우는 전쟁, 계급갈등, 성, 인종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해 왔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음악은 소리를 통해 감정을 소통하는 것이다. 가사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조적 수단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 평론가들은 가사에 집착한 나머지 음악을 듣지 않고 가사를 해석하는 문화비평가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한국적인 락'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지만 '한국적인 락'의 실체가 무엇인가

는 밝힌적이 없는 것 같다. 과연 락 음악의 국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물론 '아메리칸 락'이나 '브리티시 하드 락' 같은 말은 있다. 하지만 이는 락 음악의 종족적 두나라에서 초창기에 락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유사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단어다. 이렇게 염미에서 출발한 락이란 음악양식을 가지고 출발한 나머지 나라에 있어서 '한국적인 락'이나 '일본적인 락' 혹은 '이탈리언 락' 같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단적으로 한국의 트래쉬 메탈 밴드인 Crash와 브라질의 트래쉬 메탈 밴드인 Sepultura를 비교해 보라. 아마 음악 자체로는 이들 사이에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도 없을 것이다. 핑크리더나 판소리의 대목을 집어넣고, 도입부에 태평소 소리 같은 것을 집어넣고 '국악의 집폭'이니 '한국적'이니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하다. 실제 서구에서는 밴드들이 여러 실험적 시도들을 하지만, 그 시도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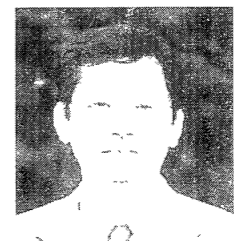
자 했던 음악적 정체성의 맥락에서 사고된다. 최근 나온 레드 제플린의 음반을 들어 보면 초창기의 음악적 색채와 분위기가 그들의 신보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음악적 정체성과 스타일의 문제와 락의 국적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락 음악의 그릇된 수용을 보여주는 또 다른 부류는 락을 하나의 기호나 패션으로만 치용하는 부류이다. 대표적으로 걸(GIRL : Get into Rock Legend)과 비비밴드를 말하고 싶다. 이들은 대부분 잘생긴 얼굴에 썩 튀어나지 않은 연주력을 바탕으로 가요에 락 형식을 덧씌우는 전략으로 성공했다. 특히 '이스피엔'이란 히트곡으로 성공했던 그들 같은 복고풍 락을 표방했다고 하는데, 한번 걸스 앤 로즈와 비교해 보라. 왜 그들의 말이 허구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비비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소 소중하고 신나는 음악을 하는 이들은 그들의 말처럼 그야말로 유쾌했다. 어찌보면 음악 그 자체를 즐기고도 보여준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핑크를 들여왔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인가? 강기영, 박현준 하면 한국에서도 손꼽는 테크니션에다가 보컬은 장광 말이다. 과연 이들이 이 사회의 낙오자일까? 결국 비비밴드의 음악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인 핑크를 연결시키며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만약 핑크의 원조를 자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무슨 핑크리더를 자신들의 약세사비즘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겠나. 이들은 단지 핑크 형식을 따른 사이버 핑크리더 뿐이다. 그것도 핑크리더의 단순한 리듬감만을 차용해서 '인형하세요'하고 인사하고 그냥 '떨기가 좋아!'라고 떠드는 것 말이다.

강 성 현
(사과대 사회학과 · 4)

달 하나 천 경애

농활에서 김활로



우리 사회가 보다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간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컴퓨터를 매개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을 통해 전자적으로는 가능하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비해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사람들이 때와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소통 매체만으로 공론의 장은 형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도 시의 저소득계층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편 이들이 공론의 장에 참여하기까지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사람들에게 컴퓨터는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니며, 필요하더라도 구입하기에는 값이 비싼 편이며, 살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유지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다.

우리 대학은 이 세 가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장 손쉬운 것부터 나열하자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유지·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초등·중·고등·대학교나 기업에서 처분하는 컴퓨터를 도시의 저소득층이나 농촌지역에 보급하고 설치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단 우리는 컴퓨터의 필요성이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활동의 대상지역은 도시의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과 농촌지역이다. 현재 농활과 비유하자면 이러한 활동을 김활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농활이 농촌지역에 한정된 것이려면 김활로는 도시에서는 계층간의 정보격차를 지방에서는 지역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들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김활로는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전국적 자원봉사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는 각 대학이 그 대학이 포함된 지역을 활동영역으로 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연계하여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활동의 내역은 크게 컴퓨터 사용, 컴퓨터 보급, 공론의 장 형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컴퓨터 사용에 관한 것에는 컴퓨터 설치 및 보수, 문제 해결, 컴퓨터 사용법 교육 및 훈련 등이 있다. 컴퓨터 교육에서 유의할 점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공장소의 확보이다. 다음으로 컴퓨터 보급은 오래된 컴퓨터를 재활용하거나 한국통신에서 무상으로 보급하는 하이텔단말기를 이용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실현이 가능하다. 컴퓨터 보급에서 유의할 점은 컴퓨터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과거의 행정부에 대한 적대적 인식에서 벗어나 그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유니텔 등과 같은 기존의 상용화산 망을 이용하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우리 사회에는 정보격차 이외에도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다. 더욱이 사회문제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이의 해결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 건 사과대 사회학과 교수

문학단신

◇ 97자유 ... 가요·음반 사전 매회담 6개월이 참여하는 이 공연 심의제 폐지를 기념한 1998년의 '자유'를 계승하는 공연으로 한국대중 음악의 현대적 문제점을 제기, 실제적인 개선을 위한 선언적 의미를 가진다. 매회담 6개월이 참여하는 이 공연에 조용필, 강산에, 넥스트, 트루화, 안지환, 이승환, 패니 등 24개팀의 최고급 뮤지션들이 출연한다. 4일부터 8일까지 고려대 노천극장에서 공연. 문의(326-1275)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을 위한 '97 하계 대학(원)생 영어연수과정

- | | |
|---|--|
| <p>참가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좀더 당당하게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대학(원)졸업예정자 ● 이번 여름방학동안 유익한 영어실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대학(원)재학생 <p>교과과정 안내</p> <p>Conversational English
Survival English
TOEIC
Reading & Writing
Vocabulary & Usage
취업특강 및 설명회, 면접특강, 모의면접
인터넷특강</p> <p>교육장소</p> <p>외대어학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p> <p>교육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97.6.30 ~ 8.22 (월급 공휴일 제외) ● 시 간 : 오전반 09:00~12:50 (4시간)
오후반 13:00~16:50 (4시간) ● 총 교육시간 : 152시간 | <p>모집인원</p> <p>반별 12명(오전, 오후 각 10명)</p> <p>참가비용</p> <p>880,000원</p> <p>일사규 및 접수</p> <p>'97.6.21(월) ~ 6.14(토) 09:00~19:00
단, 토요일은 09:00~15:00까지</p> <p>반배정 시험</p> <p>'97.6.21(토) 오전 9시부터</p> <p>특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출·결석관리 및 성적관리 ● 외국인 강사, 외국인 학생들과의 학습시간(3회/4월) ● 집중적인 영어회화 및 작문, 독해, 청취에 필요한 TOEIC 성적관리까지 (실전 TOEIC 3회) <p>성적우수자 특전</p> <p>본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는
유리 및 미우영복장공급 제공</p> |
|---|--|

외대어학원
상담 문의 : (02)568-1818
(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로부터 30m)

학원강사 연수교육

“
이직 취업이 결정되지 않았대구요?
여기 정말 매력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

4학년을 위한 특강

대상: 입시전과목 전공 및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기간: 4개월(대부분 중도 취업됨)
교육: 주4~5일(오전, 오후, 저녁 중 택일)
취업: 사내 유명인사특원 및 A급 보습학원원장과 유명강사로 구성된 150여명의 자문교수가 직접 지도, 자문하여 100% 취업(기간내에 취업되지 못하면 취업 때까지 무료 재교육)
보수: 초임 150만원부터 1000만원(취업과정없음)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이력서 상단에 화형과목, 전파번호 명기할 것)
제출: 110-110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368호
· 서류도과 순서대로 가용교육원인의 2배수 서류 심사하여 우선 및 전파로 개별 통보함
· 개인지도 유망학과 유망(이력서에 기재요함)
문의: 415-1796(6월9일까지 한합니다.)

언어로 세계로



세계화!! 말이 술술 통합니다.

많은 외국어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원이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청문은 기회를 넓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낯은 법은 가르쳐 드립니다.

● 영어회화: EFL코스, SIDE BY SIDE, INTERCHANGE, FREE TALK
● TOEIC종합, TOEIC L/C/R/C, 기초STRENGTH ENGLISH, TOEFL, VOCABULARY, AFRICAN, AMERICAN HEARING, SCREEN ENGLISH, 영자문, 영어순화, GRE/GMAT, 영문법, SAT, 대학영어연어, 영어초급, 영어특수, 영어능력시험, NHK영어, 영어능력시험 일본어회화,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무렵말발공.

● 매월 TOEIC, TOEFL 모의TEST 실시

청문외국어학원
738-5151(대동로2가 종로서점)

광고문의는 741-1661

학·전·무·대

독!

O...요즘 신한국당은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은 일이 빈번해 당대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YS가 당대표인 대우이 중책을 방문하는 사이 대선자금문제를 당화형식으로 발표하기로. '약속'을 어기자 대우의 입장은 진퇴양난. 당부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날은 버스요금

O...26일부터 기승인상된 버스 요금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데. 이렇다할 서비스 개선도 없이 4백원에서 4백30원으로 남지기 통과(?)된 것도 억울한데, 현금 승차 시 버스에 거스름돈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에 버스로 통학하는 한 학생은, '버스 요금이 남지기 원뿔처럼 버스타고 날라?'(?)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깃털 교육

O...1998년부터 5·18에 대한 국사 교과서 내용이 수정되는데. 현 교과서의 '광주 민주 항쟁'이 '광주에서 비롯된 5·18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는 등 사건의 개념이나 과정의 서술 없이 일부 어구만 수정한 것이라고.

남성주간

O...지난 28일부터 총여학생회 주최로 '여성주간'행사가 열렸는데. 거리 선전전, 열린강좌, 체육대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됐지만, 이번 행사의 주 대상인 여학생들의 참여는 저조한 반면 각 행사장에서 남학생들의 관심은 어느때보다 뜨거웠다. 이를 지켜보던 남학생, 안타까운 듯 한마디 "지금까지는 '남성주간'이었습니다. 다음 여성주간을 기대하세요!"

중앙도서관 9일부터 철야개방

기말고사 맞아 20일까지 한정 실시

중앙도서관(관장=임호일·특어특문학)은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제 1열람실을 철야 개방한다. 한편, 지난 중간고사 기간과 같이 이번 철야개방도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도서관 중앙현관문을 폐쇄하는데 지난 철야개방때문에 슬며취한 학생들이 새벽에 도서관에 들어오기 위해 현관 셔터를 부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도서관측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철야개방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학생들이 시설물을 잘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많은 학생들의 이용을 바랐다.

대학원 총학, 상반기 학술제 개최

21세기 한국에 초점 초청강연회·단편영화제 등 준비

대학원 총학생회(회장=문인식·사학 박사과정3학기)는 오는 9일까지 상반기 학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제는 '21세기 한국사회의 비전'이란 주제의 초청강연회와 '세상을 발로 차서 거꾸로 읽기'란 주제하의 단편 기획영화제로 치러진다. 지난 2일 '새 시대의 경제 정책'이란 주제로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의 강연으로 시작된 초청강연회는 오늘(3일) 오후 3시 학술문화관 제 3세미나실에서 '오늘의 난국과 한국 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부영 국회의원의 강연으로 이어진다. 4일 오후 2시 학술문화관 제 3세미나실에서는 '인문학과 역사'란 주제로 소설가 조경래 석좌교수의 강연이, 5일 학술문화관 제 3세미나실에서는 2시에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 영화상영이, 4시에는 김용수 영화감독의 '사회과학과 영화'란 주제의 강연이 각각 열린다. 이어 9일 5시 학술문화관 제 3세미나실에서는 영상원 심광현 교수의 '테크노 문화와 이미지의 문화 정치'란 주제의 강연이 열린다. 한편 단편 기획 영화제는 학술문화관 야외 광장에서 3, 4 일간 오후 8시에 상영된다. 상영될 영화는 3일에는 '4시 45분 서울', '백일몽', '카드사 이야기', 4일은 '슬픈열대', '역이', '한계' 등이다.

대학원 총학생회 한 관계자는 "강연 회후에 자유로운 토론시간이 이어지므로 학부생들도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문학연구소 전교생 대상 '창작교실'

20일까지 신청접수...신경림·조경래 교수도 참석

한국문학연구소(소장=홍기삼·국문학)는 오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6주에 걸쳐 '제 13회 여름 창작교실'을 개최한다.

한편, 권경섭(국문 64졸·태영교역 대표이사) 동문이 국문학과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기탁하는 '비담창작문학상' 시상식도 창작교실에서 갖는다.

총여, 여성연대회의 참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행사의 신청마감은 20일까지로 시, 소설, 국문학, 비평 중 1개부문 이상에 작품을 제출해야 하며, 회비는 3만원이다. 1977년 법주사에서 시작한 그동안 30여명의 문인을 배출한, 여름 창작교실은 올해로 20돌을 맞이해 신경림, 조경래 석좌교수를 비롯한 교수, 문인 등 여러 동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진다. 이번 여름 창작교실은 작품집 제작, 특강, 백일장, 합평, 등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홍기삼 한국문학연구소장은 "본교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재학생의 창작의욕을 진작시키며 선·후배간의 화합도 다지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총여학생회(회장=김인영·사3)는 오는 4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리는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리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에 참여한다. 본교를 비롯해 한양대, 국민대, 성균관대 등 총 9개 대학이 참여하는 여성연대회의는 오후 1시에 학교 성폭력문제점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진 후 2시에는 급진적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치른다. 한편, 총여학생회는 오는 6월 둘째 주에 3번째 동아여성성을 발간한다. 이번 동아여성성에는 여성주간 평가, 부모성 같이 쓰기, 성정치 위원회 활동상황 등의 내용이 수록된다.

97년 2월 졸업생 취업률 78.1%

경제불황 탓 예년비해 저조

학생처(처장=오정수·산업지원과) 취업과에 따르면 97학년도 2월 본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78.1%인 것으로 밝혀졌다. 졸업자 총 2천1백29명 중 취업대상자는 1천7백44명이었으며 이중 78.1%가 취업한 것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1천2백59명중 1천 12명이 취업해 취업률 80.38%로 나타났고 여자는 4백85중 3백50명이 취업해 72.16%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한편 계열별 취업자 현황은 인문계 2백2명, 사회계 5백44명, 자연계 3백80명, 예·체능계 56명, 사범계 1백80명

의 통계를 보였다. 직업별 취업자 현황은 전문가 2백66명, 기술공 및 준전문가 2백72명, 사무직인 8백8명,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근로자 16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취업률은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 불황등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Table with columns: 구 분, 취업대상자(A), 취업 제외자수(진학자, 입대자, 미상, 계(B)), 취업 대상자(C=A-B), 무직자(D), 취업자(E), 취업률(F=E/C)

Table with columns: 구 분, 취업자수(A), 학교추천(B), 비율(B/A), 채용시험(C), 비율(C/A), 부모경영 및 자영(D), 비율(D/A), 기타(E), 비율(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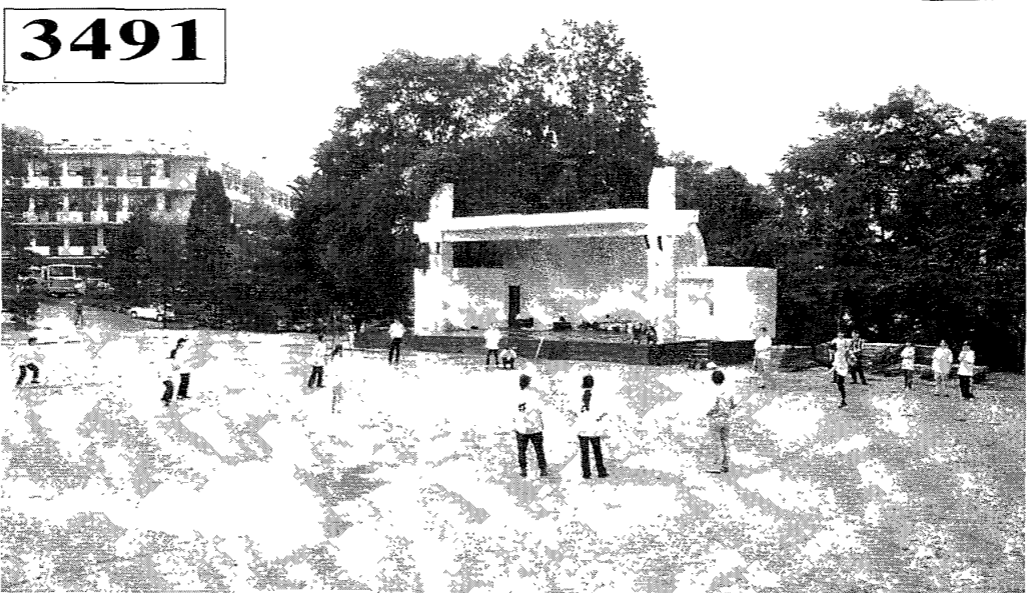
오는 23일부터 2학기 수강신청 실시

사실상 종강후 기간...신청률 저조할 듯

97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교내 컴퓨터 실습실에서 실시된다. 6월 11, 12, 13일에 실시 예정이던 수강신청기간은 PC로 수강신청을 실시함에 따라 컴퓨터실습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1학년 컴퓨터 실습실 수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연기되었다. 학사일정상 6월 27일부터 하계방학이 시작되지만 대부분 수업이 조기 종

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수강신청 기간이 사실상 종강후인 기간이기 때문에 수강신청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실시한 수강신청에 의해 분반 및 폐강 과목이 결정되므로 이 기간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원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무처 한 관계자는 "지방 학생들의 불만이 예상되지만 수업의 결손이 생

기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며 "추후 수강신청정정시에는 인원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꼭 이 기간안에 수강신청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2학년 대상교과목을 신청한 재학생은 성적 상대평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수강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 여성들의공간... 항상 남학생들의 놀이, 휴식공간이었던 민해광장은 모처럼 여학생들의 공간이었다. 여성주간을 맞아 실시한 체육대회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사진은 발아구를 하고 있는 모습. (오인택기자)

세계화장학 해외연수 실시

교환학생 5명 선발 확정

연구교류처(처장=박거덕·수학) 학술교류부는 97년도 세계화 장학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미국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에서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이번 해외연수는 1학년 16명과 2학년 2명 등 총 18명이 참가한다. 학술교류부 양영진부장은 "우수한 학생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학교에서 항공료 및 일체 경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술교류부는 중국 남경대와 대만 중국문화대 97년도 교환학생 5명을 선발했다. 교환학생에 선발된 서울캠퍼스의 조영록(중문3)군과 경주캠퍼스의 이상숙(중문3), 이태우(중문3), 서예경(중문3), 김찬배(중문3)군 등을 9월부터 98년 8월까지 자매대학에서 수학하게 되며 학술교류협정이 따라 수업료 및 기숙사비를 지원받는다.

오는 28일 고시장학생 선발

계산고시학사(사장=이순용·법학)는 오는 28일 재학생 및 복학생을 대상으로 97학년도 2학기 고시장학생을 선발한다.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계산고시학사 사감실에서 받으며 복학예정자의 경우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0명을 선발하고 원서접수시 학생증(신분증)과 사진 1매,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축구부, 8일 한양대와 첫 경기

축구부는 '서울시장기 걸 점권제전 축구 서울시 예선'에 참가해 오는 8일 오후 4시 효창구장에서 한양대와 첫 경기를 갖는다. 본교를 비롯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 한성대, 방송대, 숭실대, 건국대 등 8개 대학이 토너먼트로 치를 이번 경기에 대해 체육부 조정진 계장은 "축구부의 부진을 씻고 이번 대회는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다짐했다.

학과소식

반도체공학과는 8일 오전 9시반 대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연극영상학부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졸업공연 '사건의 착한 여자를 평일에는 7시, 금·토·일요일에는 4시, 7시 30분에 상연한다.

복학·재입학원 접수

- 1. 복학,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97. 7. 30(수) - 8 1(금)
2. 접수 장소: 교무처 학적과(본관 3층)
3. 구비 서류: 가.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 나. 군복학자 1) 기전역자 ①복학원서 1부, ②전역일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부, 2) 전역예정자 ① 복학원서 1부, ② 전역예정자 각서 1부. ※ 전역후 주민등록초본 미제출시 복학 취소됨.
다. 재입학자 - 재입학 원서 1부.

교무처장

일반휴학원 접수

- 97학년도 제 2학기 일반휴학원을 아래와 같이 접수함.
1. 신청기간: '97. 6. 23(월) - 6. 25(수) = 3일간
2. 신청자격: 97학년도 제 1학기 재학생
3. 신청대상자: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4. 접수장소: 교무처 학적과
5. 신청서류: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소정양식) 1 부.
6.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일반휴학기간 만료(2학기)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 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됨. 다. 휴학연장원은 휴학기간(2학기)이 만료되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교무처장

수강신청공고

- 97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기간: '97. 6. 23(월) ~ 6. 25(수), 3일간
2. 장소: 교내 컴퓨터실습실
3. 대상: '97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전원
4. 수강신청서 교부 및 접수 소속대학 교과과, 학부(과)·계열
5. 유의사항 가. PC 수강신청시 교과목의 학수번호, 강좌번호, 학점, 담당교수명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 나. 본 수강신청에 의해 분반 및 폐강과목이 결정되므로 필히 기간내에 모든 재학생은 수강신청을 하기 바람. 급변 기간 중 수강신청하지 않음으로 인해 추후 수강신청정정시 인원제한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다. 1,2학년 대상교과목을 신청한 재학생은 성적 상대평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수강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라. 제2학기 종합강의시간표는 소속 학부(과)·계열에서 교부 받을 것. 마. 각 대학 교과과 및 학과별로 개설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비치하였으므로 수강신청시 활용하기 바람. 바. 최초수강신청시 1학년 교필과목 등은 소속학부(과)별로 인원제한되므로 지정강좌를 신청하도록 할 것.

교무처장

방학중 외국어 특강 안내

Table with columns: 구분, 영어회화 강사 및 강의실, English Composition, TOEIC, Listening. Rows include 1차, 2차, 3차, 4차, and 5차 강의를 위한 강사, 강의실, 강의를 안내한다.

외국어 교육원

